

경제포커스

■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

정병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

정병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jbs66@sdi.re.kr

I. 들어가며: 변화하는 21세기 대도시 도심경제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계기로 국가와 지역단위 모두에서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공간구조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제침체로 인해 한때 도시문제의 온상이던 대도시, 특히 도심이 경제사회적, 환경적으로 탈바꿈을 보이며 글로벌 경쟁의 주요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뉴욕, 동경, 런던과 같은 지역은 물론,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다른 많은 도시들 또한 이 같은 도심부 변화 및 재생을 통해 해당 도시에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경쟁력의 관건인 국제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대도시 도심부의 산업경제 변화가 놓여 있다. 이미 60년대부터 산업의 분산과 교외화에 의한 도심공동화 문제를 겪은 도심권 경제는 70년대의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계기로 심각한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의 쇠퇴를 경험한 바 있다. 혼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양극화대책연구단장, 산업경제센터, 수도권정책센터
- 서울시 디지털컨텐츠 산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 2003-2005년
-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선진국의 혁신클러스터/세계의 지역혁신체계 외 다수

히 기성시가지 슬럼화(inner city) 문제로 거명되는 도심부 쇠퇴는 경제적 측면에서 물리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인한 도시문제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도심권 산업경제의 재활성화를 두고 각 도시가 벌이는 사활을 건 투쟁과 수많은 전략은 이 같이 20세기 후반 보편적 도시문제로 대두된 도심쇠퇴의 필연적 대응이라 여겨진다.

일찍이 20세기 후반 혹은 21세기 들어 흡사 잿더미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처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재생과정에는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외생적 조건 외에, 도시 내부의 부단한 내생적 전략이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여건이 괄목할만한데, 우선, 국가 및 지역간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분업의 심화와 같은 거시적 요소가 지적되어야 하겠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거시적 힘에 의해 형성된 경제의 블록화(지역화) 현상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중심성 내지 선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으로, 대도시 도심은 그 선제적 기반으로 인해 국제 중심성 획득이나 강화에 결정적 요소로 기여하고 있다.

둘째, 경제시스템의 질적 전환과 이에 따른 산업의 집적화 현상이 중요하겠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후반 들어 경제는 IT, BT, NT, ET 등 첨단기술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등장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한 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IT기술 기반의 신경제(new economy)의 확대와 전통제조업의 기술고도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의 지식서비스화’와 함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업(산업)의 집적화’라는 이중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데, 최근 IT, BT, CT 등의 첨단산업과 고차 지식서비스 영역, 심지어 일부 전통제조업 영역에서 기업간 연계와 공간적 집적이 흔히 관찰되고 있다. 이에, 도심권 경제는 이러한 변화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인 산업클러스터나 지역혁신체계는 그 정책적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경제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문화경제(cultural economy)의 부상과 도시환경의 중요성 증대를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문화관련산업의 성장에 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글로벌화·블럭화되는 경제에서 경제의 국제중심성 획득, 말하자면 국제유수기업이나 고급인적자원의 역내유치를 촉진함으로써 도심권 산업기반의 경쟁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근자에 지역개발을 위한 유력한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창조도시(creative city)’ 전략은 이러한 변화를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것인 바, 도시경쟁력 향상에서 삶의 질이나 어매니티, 역사문화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활기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다른 한편, 도시의 내생적 전략으로 도심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전략과 정책적 실험들이 모색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일부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위상과 산업적 기반과 역량을 확립해 가고 있다. 가령, 다양한 정책지원프로그램이나 개발프로젝트를 매개하여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 도심에서 뉴미디어 기업의 집적, 뉴욕의 의류패션이나 귀금속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이 그 전형을 이루고 있으며, 유럽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주도형 도심활성화 전략들 또한 이러한 전략적 대응의 구체적 예시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각종 문화지구(cultural quarter)의 형성이나 도심지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은 한때 외곽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도심부 U턴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기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입증되고 있는 바이다.

이렇듯 다변화되고 기능적으로 복합화하고 있는 대도시 도심부의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공간이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 속에 최근 경제활기가 크게 떨어지고 더욱이 산업경쟁력에 상당한 제약이 관찰되고 있는 서울의 도심도 경제 재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향한 전환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비록, 서구의 도심침체와 비할 바는 못 되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산업의 과잉집적과 영세하고 낙후된 사업방식, 초현대적 오피스군락과 노후·혼잡한 물리적 환경으로 이원화된 서울의 도심 산업과 공간 구조는 21세기 도시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다변화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대도시의 길목에서 재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환경변화 추세와 서울시 도심산업의 현재를 놓고,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떠한 가능성과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진단은 향후 서울시가 도심권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대도시 서울 도심산업의 주요 현황과 실태

1. 도심권 산업경제 현황과 추세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대도시 서울의 도심부는 중심상업지구(CBD)라는 기능적 범역이나 4대문 안이라는 역사지리적 범역 외에, 계획권역(5대 생활권)의 측면에서 종로, 중구, 용산구와 19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다. 현황분석을 위한 도심부 범위 또한 이 계획권역과 일치하는 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와 중구를 중핵으로

하고 용산구를 이를 보완하는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1394년 조선왕조의 도읍지가 정해지고, 태조에 의해 일종의 도시계획인 ‘신도궁궐조성도감’이 마련된 이래,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의 도심은 식민지와 해방기를 경험하고, 60년대 이후 근 대화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적 도심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도심은 서울 전체 면적의 9.2%, 인구의 5.7%를 차지하는 협소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과 기능적 중심성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다. 이는 산업경제적 비중을 통해 확인되는 바, 사업체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의 17.6%, 종사자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표 1>과 <표 2>를 참조). 이들 도심부 산업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우위와 선도성 위에 제조업이 다른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04년 현재, 종사자를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80.5%(사업체의 경우 85.3%), 제조업이 18.4%(13.8%)로 서울 전체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종사자 비중 81.6%, 12.4%(사업체의 경우 88.0%, 9.3%)와 대비된다. 이와 같은 서울시 전체와 대비하여 도심이 가지는 제조업의 상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에서 나타나는 높은 감소세는 현재의 도심제조업이 가지는 취약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 서울과 도심의 사업체 현황(93-04년)

(단위: 개, %)

구분	서울시					도심				
	93	96	00	04	증감률	93	96	00	04	증감률
농림어업축산	175	172	89	90	-48.57	28	28	14	18	-35.71
제조업	81,299	79,254	72,754	68,866	-15.29	18,022	18,628	17,644	17,452	-3.16
건설전기가스	14,471	17,379	16,307	19,648	35.77	1,357	1,396	1,214	1,223	-9.87
서비스업	528,896	602,992	630,386	652,175	23.31	100,141	105,091	109,175	111,433	11.28
계	624,841	699,797	719,536	740,779	18.55	119,548	125,143	128,047	130,126	8.85

<표 2> 서울과 도심의 종사자 현황(93-04년)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도심				
	93	96	00	04	증감률	93	96	00	04	증감률
농림어업축산	16,774	8,639	1,939	1,279	-92.38	9,565	1,020	281	197	-97.94
제조업	1,125,955	907,420	568,421	464,256	-58.77	269,211	169,838	125,499	108,287	-59.78
건설전기가스	278,851	454,909	247,822	219,480	-21.29	51,715	97,797	41,538	26,534	-48.69
서비스업	2,522,897	2,774,599	2,736,142	3,044,982	19.27	660,194	602,240	512,995	557,286	-15.59
계	3,974,457	4,045,537	3,574,324	3,729,947	-6.15	990,685	870,895	680,313	692,304	-30.12

이와 같은 산업구조상의 현황과 추세에 더해, 도심권 산업경제는 공간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표 3>는 자치구별로 산업경제의 공간적 모습을 요약

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7만여개의 사업체에 3십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구가 가장 높은 산업적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4만여개의 사업체에 2십1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종로구의 산업적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말해, 도심권 산업경제에서 중구는 도심 사업체의 53.5%, 종사자의 51.4%를 차지하는 등 중구의 도심권 경제에 대한 선도적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다.

<표 3> 도심부 자치구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04년)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체(개)				종사자(명)					
	도심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심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1차 산업	18	7	8	3	197	73	86	38		
제조업	섬유,가죽제품	4,914	1,684	2,654	576	20,457	6,192	11,913	2,352	
	목재 및 종이제품	508	60	398	50	1,968	149	1,524	295	
	출판,인쇄업	6,883	627	5,915	341	40,097	10,439	26,714	2,944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194	91	94	9	3,207	1,693	1,424	90	
	기계	1,620	507	938	175	4,979	1,150	2,565	1,264	
	가구 및 기타제조업	1,631	1,078	455	98	4,798	3,048	1,419	331	
	소계	17,441	4,584	11,286	1,571	96,362	29,821	54,706	11,835	
비제조업	건설업전기, 가스	1,223	341	478	404	26,534	10,118	12,032	4,384	
	서비스업	도소매	65,790	17,817	39,027	8,946	179,710	44,783	103,435	31,492
		음식, 숙박	15,872	6,165	6,067	3,640	64,874	21,675	30,471	12,728
		금융, 보험	1,875	547	1,102	226	65,208	16,540	45,120	3,548
		사업서비스	6,027	1,673	3,701	653	87,826	25,727	47,281	14,818
		문화	2,673	1,120	965	588	13,428	5,643	5,233	2,552
		기타서비스	6,652	2,472	2,363	1,817	21,284	7,187	8,035	6,062
	소계	111,433	34,183	57,968	19,282	561,436	175,350	290,126	95,960	
총 합계	130,115	39,115	69,740	21,260	684,529	215,362	356,950	112,217		

이와 같은 중구의 중심성은 세부 업종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시적,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 종사자(04년 현재)를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구가 51.7%, 종로구가 31.2%, 용산구가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집적을 두드러지며, 제조업 역시 중구가 56.7%, 종로구가 30.9%, 용산구가 12.4%로 중구의 상대적 우위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대 산업에서의 절대적 우위 외에도 제조업에서의 상대적 우위 또한 존재하는 바, 서비스업 대 제조업 비중이 84.1 : 15.9(종로구의 경우 85.5 : 14.5)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도심권을 둘러싼 산업적, 공간적 양태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은 도심권 산업경제의 거시적 윤곽을 스케치하고, 개별 구성공간들이 가지는 현재적 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인하기 어려운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에서 도심권이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特長이자, 冒頭에 언급한 21세기 대도시 도심권 경제의 주요 변화상을 포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수한 산업조직화 논리를 구현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라는 현미경으로 도심권 경제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인 산업적 특성과 입지논리에 근거한 산업에 대한 개념적 재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도심부 산업클러스터 주요 실태

산업을 특성별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심권 경제의 특성상 산업구조적 측면(제조업/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성, 그리고 문화적 지향성과 같은 개념적 기준을 가지고 산업을 재구성해 보는 것이 한 가지 유용할 방식일 수 있다. 이들 기준에 의해 도심부를 채우는 다종다양한 산업은 거시적 수준에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도심선도산업군/도심특화산업군/일반산업군/근린산업군/관리형산업군/기타 산업군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선도산업군에는 정보통신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금융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이, 특화산업군에는 문화관광산업, 의류패션산업, 귀금속보석산업, 인쇄출판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앞의 5대 산업군은 11개 업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별첨 I을 참조).

<표 4>는 재구성된 산업에 의해 도심부 산업경제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심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근린산업군 사업체의 양적 비교우위가 관찰되며, 그 다음으로 전체 사업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특화산업군이 높은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화산업군의 경우, 서울의 다른 선도적 산업중심지인 강남 3개구(10.8%)와 비교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특화산업군의 상대적 발달은 도심권 경제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도산업군은 비록 사업체 비중(6.64%)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나, 대기업 본사 위주라는 기업조직의 특성상 종사자 비중(24.3%)이 특화산업군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다른 선도산업군 중심지인 강남 3개구(32.6%)와 비교해서도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들 특화산업군의 사업체와 선도산업군의 종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두 주력산업군이 제한된 공간 내에 강력한 집적의 입지향성과 기업 상호간 혹은 산업간 연계, 즉 도심권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도심권 경제를 서울의 다른 산업공간과 구별되도록 하는 요소인 동시에 경쟁적이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이들 산업클러스터가 도심권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업체 비중은 대략 40%(종사자는 31%)에 달할 정도로 도심권 경제에서 산업클러스터가 차지하는 의의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 도심권 경제 특유의 성격이 확인되는 바, 동남권과 더불어 대도시 경제의 선도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특화산업의 집적에 기반한 산업클러스터가 잘 발달된 다중성의 경제공간이란 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적 특성은 향후 도심권 재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

한편, 상술한 외양상의 특성과 더불어 지난 10여년간의 변화 또한 도심권 경제를 면밀하게 해부해 보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다른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도심권 산업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도산업군과 특화산업군에서의 변화가 중요할 것인데, 실제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93년 이래로 사업체에 있어서 각각 31.3%, 39.1%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심 전체 사업체 성장률(7.8%)은 물론, 서울시 전체의 성장률(8.9%)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것으로, 사실상 이들 두 산업군을 중심으로 도심권 경제성장 전반을 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각각 23.1%, 26.6%의 감소를 보여, 도심 전체 종사자 감소율(-31.3%)보다 낮기는 하나, 서울시 전체의 종사자 감소율(-6.2%)보다 훨씬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도산업군의 종사자 감소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금융보험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높은 감소(-56.5%)에 의한 것인데 비해, 특화산업군에서 종사자 감소는 귀금속보석 산업에서의 성장을 제외하고 업종 전반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화산업군에서 종사자 감소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현재 특화산업군에서 나타내는 외견상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도산업군에서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보다 중요하게는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특화산업군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서 비롯한다.

〈표 4〉 도심부 산업클러스터 사업체 현황(93-04년)

(단위 : 개, %)

	업종	93	96	00	04	증감률
도심선도 산업군	정보통신산업	387(0.3)	498(0.4)	726(0.6)	638(0.5)	64.9
	디지털컨텐츠산업	136(0.1)	160(0.1)	486(0.4)	602(0.5)	342.7
	금융·보험업	2,041(1.7)	2,310(1.8)	2,395(1.9)	1,875(1.4)	-8.1
	사업서비스업	4,025(3.3)	3,697(3.0)	4,014(3.2)	5,538(4.2)	37.6
	소계	6,589(5.5)	6,665(5.3)	7,621(6.0)	8,653(6.6)	31.3
도심특화 산업군	문화관광산업	2,408(2.0)	2,514(2.0)	1,215(1.0)	2,716(2.1)	12.8
	의류패션산업	21,959(18.2)	32,774(26.2)	31,739(25.1)	34,875(26.8)	58.8
	귀금속·보석산업	3,943(3.3)	3,302(2.6)	3,514(2.8)	3,834(2.9)	-2.8
	인쇄출판업	6,411(5.3)	7,085(5.7)	7,084(5.6)	6,883(5.3)	7.4
	소계	34,721(28.8)	45,675(36.5)	43,552(34.4)	48,308(37.1)	39.1
도심근린산업군	73,198(60.7)	66,343(53.0)	69,601(55.0)	67,706(51.9)	-7.9	
관리형산업군	4,511(3.7)	4,794(3.8)	4,348(3.4)	4,203(3.2)	-6.8	
기타산업군	1,617(1.3)	1,699(1.4)	1,437(1.1)	1,463(1.1)	-9.5	
도심 전체	120,636(100)	125,176(100)	126,559(100)	130,333(10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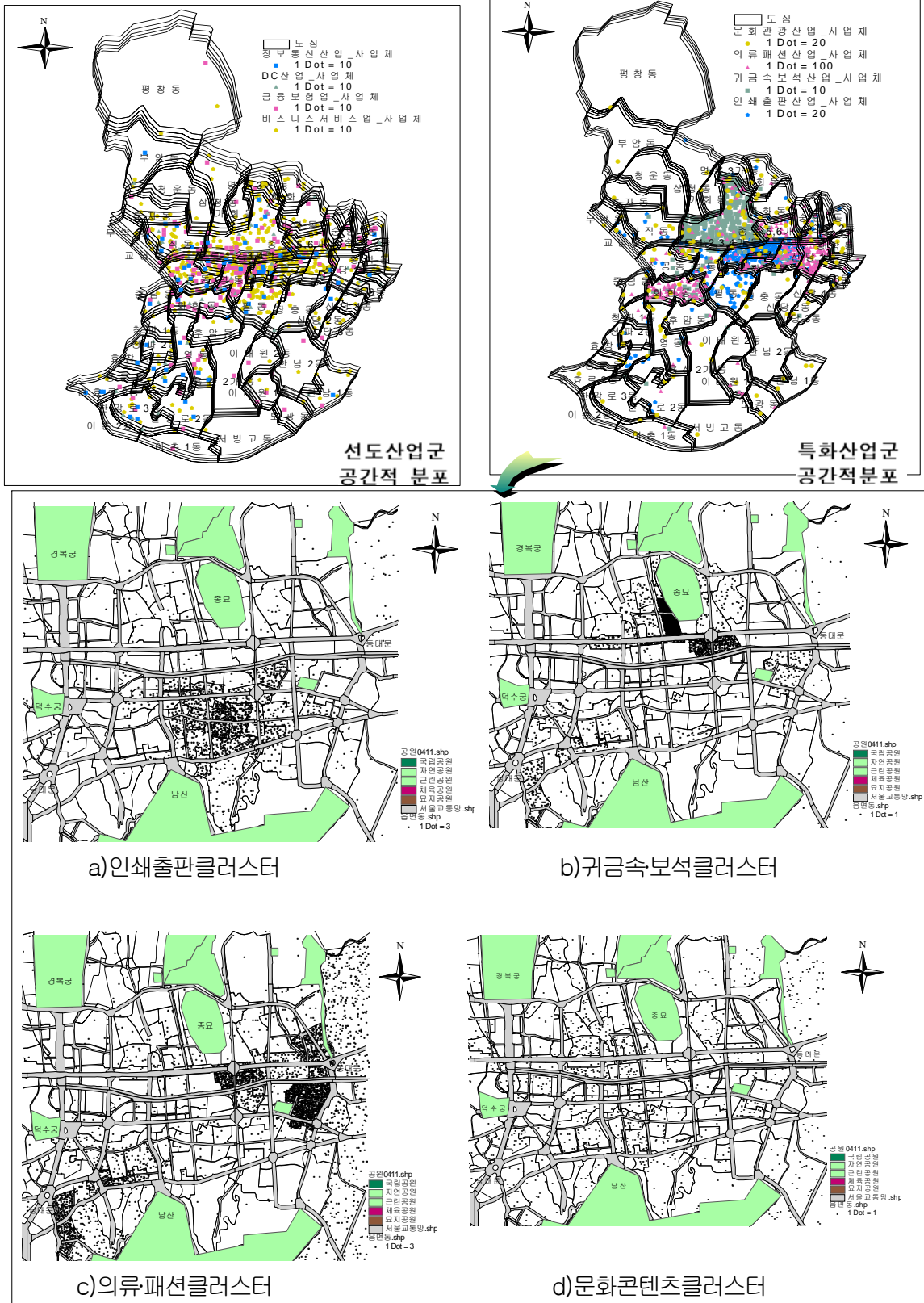
주: ()는 도심 전체 대비 비중

〈표 5〉 도심부 산업클러스터 종사자 현황 : 93-04년

(단위 : 명, %)

	업종	93	96	00	04	증감률
도심선도 산업군	정보통신산업	24,440(2.4)	16,015(1.8)	35,631(5.3)	21,688(3.1)	-11.3
	디지털컨텐츠산업	3,121(0.3)	4,315(0.5)	8,768(1.3)	12,052(1.8)	286.16
	금융·보험업	149,758(14.9)	90,543(10.4)	58,044(8.7)	65,208(9.5)	-56.46
	사업서비스업	40,519(4.0)	51,186(5.9)	35,415(5.3)	68,563(10.0)	69.21
	소계	217,838(21.7)	162,059(18.6)	137,858(20.6)	167,511(24.3)	-23.10
도심특화 산업군	문화관광산업	27,124(2.7)	18,150(2.1)	5,304(0.8)	22,940(3.3)	-15.43
	의류패션산업	100,027(10.0)	94,921(10.9)	76,639(11.5)	63,868(9.3)	-36.15
	귀금속·보석산업	7,626(0.8)	7,182(0.8)	7,639(1.1)	8,902(1.3)	16.73
	인쇄출판업	50,327(5.0)	49,880(5.7)	43,580(6.5)	40,097(5.8)	-20.33
	소계	185,104(18.5)	170,133(19.6)	133,162(19.9)	135,807(19.7)	-26.63
도심근린산업군	389,250(38.8)	346,485(39.8)	302,023(45.1)	303,606(44.1)	-22.00	
관리형산업군	121,544(12.1)	63,234(7.3)	30,034(4.5)	25,800(3.7)	-78.77	
기타산업군	89,189(8.9)	127,999(14.7)	66,195(9.9)	56,000(8.1)	-37.21	
도심 전체	1,002,925(100)	869,910(100)	669,272(100)	688,724(100)	-31.33	

주: ()는 도심 전체 대비 비중



<그림 1> 도심 주력산업군 및 4대 특화업종의 공간적 분포패턴

마지막으로, 도심권 경제의 실태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산업의 지리적 분포가 중요하다. <그림 1>이 도심권 경제의 주력산업군인 선도산업군과 특화산업군의 지리적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우선, 선도산업군의 경우 가장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는 명동과 인접지역인 종로1~4가동, 소공동, 회현동을 핵으로 횡적 집중 속에 도심 전반에 널리 분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구의 소공동과 명동 일대에 금융보험업의 대거 집적하는 대신, 정보통신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은 가로축 전반에 걸쳐 분산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외견상 선도산업군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특화산업군의 경우에는 종로1~4가동, 을지로3~가동, 종로5,6가동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 다양한 업종들이 강력한 공간적 집적이 형성되어 있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지패턴은 도심권 경제 내에 산업전문화와 다양성이 공존하도록 하는 요소로써 집적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주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업종별로 지구별 특화경향 또한 관찰되고 있는데, <그림 1>의 하단부 네 개 그림이 이를 도시한 것이다. 먼저, 인쇄출판클러스터의 경우 을지로, 충무로, 관수동, 인현동, 삼각동, 방산시장 등을 일대로 강력한 집중형의 입지패턴이 발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인현동을 중심으로 종이인쇄가, 충무로지역의 경우 기획·산업디자인·출력이, 그리고 방산시장 일대에서 관광상품·특수인쇄·포장인쇄 등으로 특화되어 있다. 귀금속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과밀에 따른 과다경쟁이 우려될 정도로 종로1가~4가에 이르는 양호한 교통접근성과 풍부한 유동인구를 가진 대로변을 중심으로 상가가 집적하는 일종의 코리도(corridor)를 형성하는 한편, 최근 대로변을 중심으로 대형상가의 유입에 의한 소매활동 증가세를 보이는 묘동·봉익동 일대에 제조와 도매부문이 집적하는 공간분업이 뚜렷하다. 이런 분업구조에 기초하여 제조업과 유통업의 긴밀한 교류와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업체의 영세성, 제조공간의 부족과 난립,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화산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패션클러스터의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59%에 달하는 꾸준한 성장세 속에서 도심부를 향한 강력한 집적세가 존재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동대문 패션타운과 남대문·명동 두 축이 집적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기획-디자인-제조-판매 체인 모두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통합형의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남대문·명동은 주로 유통·판매 부문으로 중심으로 한 소매상권이 발달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클러스터의 경우, 도심 전반에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의 분포를 반영하여 편재적(ubiquitous) 입지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세 개의 하위클러스터(sub-cluster)가 식별되고 있다. 세종로, 수송동 일대를 중

심으로 한 역사문화활동 관련 집적지, 충무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 집적지, 그리고 동숭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 집적지 등이 그것이다.

3. 소결 : 자체완결적인 시스템(autopoietic system)으로서 도심클러스터의 가능성과 한계

앞의 몇 가지 논의를 통해 도심권 경제가 가지는 현재적 모습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청계천의 역사 속에 스며있듯이 지난 60년대 산업화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산업적, 공간적으로 확대·재생산된 그 결과로 오늘날의 도심권 경제가 목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도심권 산업클러스터가 놓여 있다. 이들 산업클러스터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 내적으로는 상호 연관된 기업간에 다양한 형태의 연계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문이 지속적으로 분화·확대되었으며, 공간적 측면에서도 내적인 집적과 외연 확산을 통해 자체완결적인 시스템(autopoietic system)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심권 경제 내부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스스로 창출·공급하는 산업시스템의 확립은 도심권 경제를 차별적이고, 경쟁적하게 만드는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였으며,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내부 환경을 스스로 창출하는 그 본래적 역량으로 인해 21세기 글로벌 경제변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적응력과 선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족적 시스템은 양면성 또한 가지는 바, 변화와 혁신에 취약한 도심권 경제로 화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최근 클러스터 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하고 있는 기술 및 조직의 고착화(lock-in) 현상이 그것으로, 클러스터 발전과정에 공공의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심권 경제가 가지는 이와 같은 거시적 특성과 더불어, 도심부의 산업클러스터에 대해 미시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동종 및 이업종이 공존하는 복합형의 클러스터가 도심 산업클러스터가 내재하는 다른 한 가지 특성이다. 일차적으로, 지식집약적 부문과 전통 부문으로, 다시 금융 및 사업서비스에서부터 인쇄출판, 의류패션, 귀금속보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업종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도심 산업클러스터 총체를 구성하는 바, 도심권 경제는 특정 업종의 강력한 공간집적과 함께 산업적 다양성(industrial diversity)이 공존하는 경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은 전 세계 수많은 클러스터의 전형이자 규범으로 회자되는 ‘제3이태리(Third Italy)’ 산업지구에서 관찰되는 산업클러스터, 즉 지구 전역이 특정한 한, 두 산업부문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클러스터와는 매우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도심권 경제가 나타내는 이 같은 복합형 클러스터는 클러스터가 가지는 주된 경쟁이점의 하나인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y)’ 효과를 창출하는 요소이다.

둘째, 도심권 산업클러스터가 가지는 연계 및 네트워크의 취약성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기실, 이 연계와 네트워크는 기업들의 지리적 집적과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로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명실상부한 클러스터로 만드는 요소이다. 도심부의 경우 거래·하청에 의한 연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도·소매상 중심의 클러스터 구조는 그것을 매우 제한적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신뢰와 협력이 더욱 고도화된 거버넌스 형태인 ‘협력네트워크’ (가령, 공동사업이나 교류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는 바, 도심권 산업클러스터는 실리콘 밸리나 제3이태리와 같이 고도의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인 ‘사회적 네트워크형’ 보다는 ‘단순집적형’에 가까운 클러스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취약한 네트워크는 사업상의 협력의 경험과 문화가 미발달한 기업내적 요인에서 비롯된 점 외에, 기업간 주요 접촉점이자 산업의 이해대변기구로서 도심권 내 사업자단체들의 경쟁적·분열적 양상에도 기인한바 크다고 여겨진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도심권 클러스터의 취약한 연계와 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 개선은 도심권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클러스터가 대면하고 있는 환경적 특성이 지적될 수 있겠는데, 도심권의 경우 역사문화 자산과 어메니티·활기 등의 환경요소가 클러스터의 주요 견인차이다. 이렇듯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문화적 활기의 중심지로서 도심부는 도심이 가지는 본래적 속성이기도 하거니와, 의류패션업, 귀금속보석업, 인쇄출판업, 이외 문화콘텐츠산업 등 클러스터에 의해 역으로 강화된 면이 없지 않다. 어쨌거나,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 의해 도심권 경제에 형성된 문화적 胚胎(cultural embedding)는 숙련 및 디자인 집약적이고 강력한 문화 및 수요자 지향성을 견지하는 업종들이라는 도심 산업클러스터의 공유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산과 사회문화적 활기가 산업클러스터의 성장과 질적 발전에 견인차가 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 근거한 것인데, 이 같은 특성은 뉴욕이나, LA, 런던, 동경과 같은 대도시에서 관찰되고 있는 신경제클러스터의 급속한 성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도심의 재활성화를 모색하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문화주도형 도심재생전략’의 근간을 이루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환경적 측면은 도심부의 경쟁적 강점에 대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

구하고 도심공간에 여전히 편재하고 있는 노후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보다 직접적으로 도심소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술한 사회문화적 환경요소들과 부정합을 보이며 도심상권 특유의 장소정체성 혹은 도심산업 특유의 산업이미지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 오랜 과정에 의해 축적된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 또한 도심권 경제의 재활성화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한 과제이다.

III. 주요 정책과제

1. 취약한 경쟁력과 열악한 경쟁환경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국가 중추기능의 중심지이자 상업 및 서비스 활동의 결절지로서 서울 도심부의 산업경제는 비중과 성장세 측면에서 놀라운 것이며, 여기에는 도심권 산업클러스터의 기여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막대한 위상과 규모,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침체, 특히 특화산업군을 중심으로 하는 종사자 감소는 취약해지고 있는 도심부 산업경쟁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 도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연구 및 기술개발역량이나 마케팅 전략, 브랜드파워, 혁신경영기법의 도입 등은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경쟁열위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약한 도심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야 하겠다.

1) 사업의 영세성과 자금/입지/인력을 둘러싼 경영애로

기업의 평균 종사자수가 5.3명 정도이며, 특화산업군의 경우 2.8인 정도에 불과한 도심권 기업의 영세성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애로를 초래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실제, 경영애로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은 경영자금 부족과 더불어 업체간 경쟁심화, 지가 및 임대료 상승, 이외 인력충원과 결부된 문제를 주요 애로로 응답하는 등 자금, 입지, 인력이 주요 애로로 등장하고 있다(<표 6> 참조). 이 가운데 인력애로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과 같은 본질적 문제 외에, 잦은 인력이동이나 인력확보의 어려움, 훈련비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애로요인들에 대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표 6〉 도심소재 기업들의 경영애로(복수응답 허용)

구분	빈도	경영자 금부족	급속한 시장변화	복잡한인 허가절차	업체간 경쟁심화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우수인력 확보 애로	과중한 조세부담
선도산업군	60	43.3	21.7	23.3	30.0	13.3	10.0	8.3	23.3
특화산업군	130	37.7	51.5	3.8	39.2	33.1	11.5	0.8	7.7
근린산업군	20	90.0	40.0	10.0	20.0	10.0	5.0	0.0	15.0
관리형 산업군	40	47.5	32.5	17.5	27.5	20.0	15.0	20.0	7.5
전체	250	44.8	40.4	11.2	33.6	24.4	11.2	5.6	12.0

주 : 미미한 응답률을 보인 기타 항목들은 제외

2)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불충분한 산업지원인프라

상기 3대 도심산업 경영애로의 하나로 대두된 입지애로와 관련하여 애로가 초래되는 주요 요인은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지원인프라 불충분한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표 7〉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지가와 임대료(38.4%), 사업공간의 부족(15.6%), 물리적으로 열악한 건물(14.0%), 교통·통신관련 시설부족(13.2%) 등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입지애로 요인은 현재의 이원화된 도심공간구조의 한 단면을 차지하는 노후한 시설과 불량한 환경에서 초래되는 과밀집적과 이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발생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는 제조영업공간의 부족과 입지상의 무질서로 인한 생산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나아가 도시의 쾌적성과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이외에, 최근 증대되고 있는 교통혼잡과 친보행자 교통체계 미비, 그리고 물류주차공간 부족 등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요소 또한 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표 7〉 도심기업들의 입지애로

구분	사업공간 부족	높은 임대료	물류시설 미흡	공공편의 시설 부족	열악한 물리적시 설	공공시 설부족	불량한 주변거리	공해, 소음	노점상 문제
선도산업군	30.0	30.0	20.0	8.3	8.3	1.7	1.7	0.0	0.0
특화산업군	7.7	40.8	3.8	6.9	20.8	1.5	10.8	6.2	1.5
근린산업군	30.0	30.0	30.0	0.0	5.0	0.0	5.0	0.0	0.0
관리형산업군	12.5	47.5	25.0	5.0	5.0	5.0	0.0	0.0	0.0
전체	15.6	38.4	13.2	6.4	14.0	2.0	6.4	3.2	0.8

3) 내수시장 포화의 돌파구로서 해외시장 진출의 제약

근자에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는 도심상권에도 상당한 침체와 경영압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여건에서 최근 도심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가의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사업체의 양적 팽창은 업체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내수시장의 포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해외진출과 수출시장의 개척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사업체의 영세성은 이러한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근원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활동에 대한 애로요인으로 거래선 확보의 애로, 관련 해외시장 정보부족이 지적되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내수시장 포화에 대한 돌파구는 다른데서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치전략, 즉 외국(관광)인을 적극 끌어들이고, 이를 도심 상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간적 집적과 산업적 다양화에 대비되는 취약한 연계와 네트워킹

이미 강조된 바와 같이 산업클러스터가 잘 발달된 도심권 경제의 주된 강점은 각 경제주체간 긴밀한 연계와 네트워킹에 있다. 이것이 잘 확립될 경우 국지화경제는 물론, 도시화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심은 그 강점과 잠재력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약요인들에 기인한다.

1) 클러스터 구성주체간 협력관계 미흡

서울의 도심권 산업클러스터가 사회적 네트워크형보다 단순집적형에 가깝다는 분석에서 시사하듯이, 클러스터 내부 구성주체간 협력관계는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실제 조사에서 공동의 사업수행이나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전체의 1/4 정도(<표 8>)에 불과하다는 점에 의해 잘 예시되며, 특히 이러한 양상은 일반기업 외에 심지어 클러스터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공동사업이나 협력이 존재하는 경우조차,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동구매, 시장조사를 위한 협력과 같이 일상적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저차원의 협력사업에 국한되고 있고, 기술 및 경영기법상의 제휴, 공동판매나 신제품 시장성 평가와 같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공동사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표 9> 참조).

상술한 클러스터 내부 구성주체간 교류협력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간 협력네트워킹

또한 이종교배(cross-fertilization)를 통해 시너지와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가령, 의류패션이나 귀금속보석 혹은 인쇄출판이나 광고디자인, 나아가 이들과 문화콘텐츠 부문과 같이 업종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연관이나 공동의 기술기반을 가지는 업종간 연계와 협력은 창조와 혁신을 둘러싼 시너지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부 산업클러스터에서 이업종간 교류협력은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또한 도심권 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공동사업의 협력주체를 묻는 조사에서 동일업종(86.3%)과의 협력이 주를 이루는 반면, 타 업종(7.8%) 심지어 관련업종(3.9%)과의 연계는 매우 미미함을 보여 클러스터간 협력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표 8〉 기업간 공동사업 및 협력 실태

		구분	빈도수	있다	없다	계
클러스터 기업	선도산업	정보통신/디지털컨텐츠산업	30	33.3	66.7	100.0
	특화산업	귀금속·보석산업	30	33.3	66.7	100.0
		문화/관광산업	40	22.5	77.5	100.0
		의류패션산업	30	6.7	93.3	100.0
		인쇄출판업	30	0.0	100.0	100.0
비클러스터 기업	선도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	30	6.7	93.3	100.0
	근린산업	가정용품 도소매업	20	10.0	90.0	100.0
	관리형 산업	금속기계장비산업	20	55.0	45.0	100.0
		전기전자정밀산업	20	25.0	75.0	100.0
계			250	20.4	79.6	100.0

〈표 9〉 협력의 주체와 사업의 유형

구분	빈도수	동일 업종	관련 업종	다른 업종	협회나 조합
공동사업 및 협력의 주체	51	86.3	3.9	7.8	2.0

구분	빈도수	공동구매	사업공간 공동 사용	공동 시장조사	신제품 공동 시장성 평가	광고 및 마케팅 협력	기술, 경영 제휴	공동 판매
사업유형	51	41.2	9.8	25.5	7.8	9.8	2.0	3.9

2) 산업적 다양화와 사회문화적 활기의 활용 미흡

21세기 문화경제의 시대에는 장소가 가지는 역사성이나 정체성 문화콘텐츠의 산업적(상업적) 활용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의 도심부가 내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 고조된 사회문화적 활기와 어매니티는 도심권 경제의 주된 강점일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각종 역사문화자산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더욱이 각각의 자산들이 개별 사이트로 분절화된 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도심상권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적 도시이미지나 장소성정체성을 창출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이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 보다 중요하게는 문화영역과 산업영역과의 컨버전스, 나아가 문화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이 미진한 점도 주요 과제로 지적될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역사문화 자원들과 각종 문화행사들이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한정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3. 도심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체계와 통합적 리더십 결여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에서 예시되듯이, 응집력있고 리더십을 가진 산업주체나 조직의 존재,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체계의 확립은 클러스터 성공에 중요한 요건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도심 산업클러스터에는 두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정책과제의 존재로 말미암아 도심권을 거점으로 하는 정책플랫폼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지원체계가 긴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클러스터 내부 분화에 따른 경쟁적 거버넌스 구조가 지적될 수 있다. 기실, 오랜 역사성을 가진 산업클러스터, 특히 도심권과 같이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다양한 산업들이 뒤얽혀 있는 클러스터는 자연히 다원화된 조직의 발달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다원화된 조직들이 클러스터 발전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과 같이 경쟁적 이해추구나 통합적인 비전이 부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와 같은 분열적이고 경쟁적인 거버넌스 구조는 향후 일관된 비전과 전망 아래 전략을 선도하고, 다양한 경제활동과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도심권과 같이 대규모의 다양한 산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시스템에서 이에 상응할만한 제도적 환경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도심권 경제와 관련된 정책지원은 대개 의류패션산업과 일부 인쇄산업에 한정된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더욱이 이들 정책지원이 도심권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후자의 경우, 가령 도심권 의류패션업과 강남권 의류패션업의 대비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업종이 지역별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에 따라 지역산업과 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V. 도심권 산업재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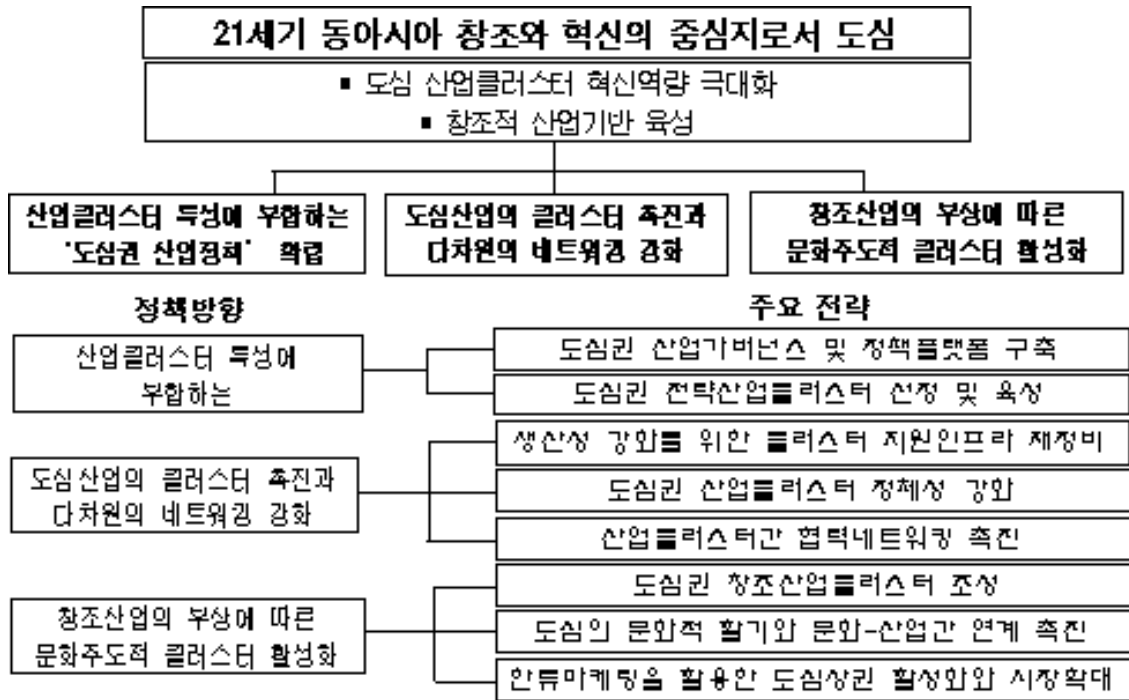
1. 비전과 정책방향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성장, 문화경제의 대두와 더불어 한때 도시문제의 온상이던 대도시 도심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자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전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은 도심의 재생과 도심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런 글로벌 변화추세에 발맞춰 현재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대도시 서울도 일관된 비전 아래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기서 도심부 발전과 재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은 앞서 논의된 도심권의 산업발전추세나 강점을 강화하되, 도심부가 직면한 각종의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도심권이 추구할 비전은 상술한 글로벌 도시변화 추세에서 볼 때 “21세기 동아시아 일대 창조와 혁신의 중심지로서 도심”에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목표 및 세부 정책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도심권 경제의 강점으로서 클러스터의 양적 성장을 질적 고도화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기반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업주체간 연계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창조적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전략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는데, 이는 도심권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산업기반과 사회경제적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도심의 물적·사회문화적 인프라에 기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문화적 활기가 고조되고, 이에 상응하여 창조기업과 인력이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들 영역이 내재하고 있는 창조성을 강조하여 창조산업으로 명명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기반을 확립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적 산업기반 육성 전략은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히 정책의 방향은 창조경제의 부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문화주도적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3대 정책방향을 놓고, 도심재활성화를 위한 8가지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2> 도심권 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

2. 도심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8대 전략

1) 도심형 전략산업클러스터(가칭 ‘도심전략클러스터’) 선정 및 육성

기업의 공간적 집적 및 전문화와 공존하는 산업적 다양화는 도심권 산업생태계의 주된 特長이긴 하나,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요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적정한 기준을 통해 도심권 산업정책추진을 위한 전략적 타겟, 말하자면 도심전략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클러스터 선정에는 적정 기준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의 성장세나 정책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유용할 것이다. 클러스터 성장세나 국지화경제 우위, 전략적 의의와 같은 기준이 그것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산업을 평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최종 도출될 전략산업클러스터는 모두 7개 업종으로, 이 가운데 사업서비스 클러스터는 비클러스터형 산업이긴 하나 전략적 의의가 높은 산업이며, 정보통신클러스터와 디지털콘텐츠클러스터는 산업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고려해 단일의 클러스터로 통합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 결과로 아래의 6대 클러스터가 전략클러스터로서 의의가 높으며, 향후 도심 산업정책의 전략적 타겟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

- 정보통신 및 디지털컨텐츠클러스터
- 사업서비스클러스터
- 의류패션클러스터
- 인쇄출판클러스터
- 귀금속보석클러스터
- 문화관광클러스터

〈표 10〉 도심부 전략클러스터 선정결과

업종	성장세		국지화경제 우위		전략적 의의		전략 클러스터
	사업체	종사자	지리적 집적도	협력 네트워크	종사자 비중	선도성	
정보통신산업	○	△	△	○	△	○	○
디지털컨텐츠산업	○	○	△	○	×	○	○
금융·보험업	×	×	△	-	○	○	×
사업서비스업	○	○	×	×	○	○	○
문화관광산업	△	△	△	△	△	△	○
의류패션산업	○	△	○	×	○	△	○
귀금속·보석산업	×	○	○	○	×	△	○
인쇄출판업	△	△	△	×	○	△	○
도심근린산업군	×	△	×	×	△	×	×

주: 우위성의 정도는 강 : ○, 중 : △, 약 : ×을 의미

2) 도심권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플랫폼 구축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도심권 산업클러스터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에 특화된 체계적인 정책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지원이 있는 경우에조차 선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지원체계는 궁극적으로 취약한 제도적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심재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통합적인 정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출발점은 도심권 산업정책의 확립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책플랫폼 구축이 모색될 수 있겠다.

동 정책플랫폼 구축 사업은 도심산업지원의 거점 기관으로서 ‘도심부(권)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가칭)’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행 산업지원기관들의 기능재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센터의 조직구조로는 팀조직 원리에 기초하여 ‘경영지원부’와 ‘공동사업부’ 등 2개 사업부 아래, 자금지원팀/창업 및 경영컨설팅팀/입지지원팀, 수출및 마케팅사업팀/인적자원개발팀/기술혁신사업팀 등 6개 팀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거점조직에 의해 현재 도심기업의 주요 애로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외에, 업계와 공동으로 수행할 공동사업으로서 중소기업경영진단, 협동화 및 사업장 집산화지원, 그리고 수요자중심형 인적자원개

발 등의 기술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상기 센터의 설립방안으로는 ‘신설 방안’ 과 ‘기존 조직 내 설치’ 의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산업통상진흥원내 도심권 사업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기존 조직의 노하우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행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동 센터의 설립에 상응하여 기존 센터를 클러스터 특정적 지원서비스 기능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으로, 기업간 교류활동 지원, 기술지원서비스, 인력양성 및 고용수급,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 이외, 향후 패션디자인센터와 디자인센터의 기능중복도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패션센터의 디자인관련 기능을 디자인센터로 통합하는 적절한 양자간 기능분담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민간주도 산업발전 선도기구로서 ‘도심산업발전위원회(가칭)’ 설치

도심권 경제와 같이 전문화 속에 복잡한 분화를 보이는 산업구조에서는 체계적인 산업발전전략 및 정책지원과 함께, 업계가 비전과 전망을 공유하고 전략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선도·추진해 갈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도심과 같이 분열적, 경쟁적 가버넌스는 향후 보다 협력적 가버넌스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바, 그 일환으로 업계 내부의 의견과 의지를 수렴하고 업계 상호간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도심권 전반의 발전을 모색하는, 일종의 범도심권 산업발전 선도기구로서 ‘도심산업발전위원회(가칭)’ 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동 기구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공공(서울시와 자치구)은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재정참여를 수행하는 한편, 민간은 업계의 참여와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업계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은 산학연 협력의 선도주체로서 도심산업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여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 자문기능을 제공한다.

동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그리고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우선 위원회에 대해 아래 적시된 바와 같은 위상 및 역할을 부여해 볼 수 있다. 조직구성의 경우에, 전략산업별 사업자단체나 연합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 말하자면 Hub & Spoke모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사업의 추진운영을 위해 이들 분과위원회에 의해 피선되고 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6개의 실무추진반(working group)-산학연협력 사업단, 금융지원추진반, 인적자원개발추진반, 수출 및 마케팅추진반, 기술혁신추진반, 입

지환경개선추진반 등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지향적, 행동지향적 조직운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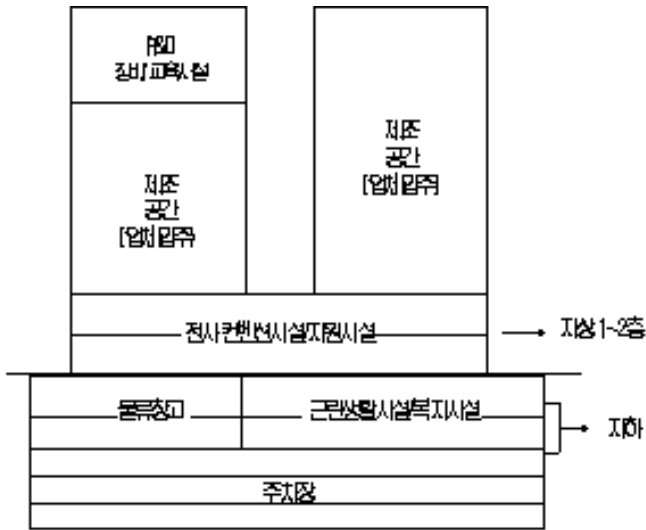
○ 도심권 산업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도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선도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로,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
- 도심산업 발전에 요구되는 유무형의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자
- 클러스터 활동을 촉진하는 촉진자

4)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지원인프라 재정비 사업

최근 도심재개발과 맞물려 상가용 건물의 공급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제조업체의 생산지원시설이나 유통지원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도심부의 쾌적하지 못한 이미지로 이어져 도심 산업클러스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심 중소기업의 집단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생산 및 유통지원시설의 공급은 생산·유통의 효율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심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할 수 있겠다.

사업의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지원시설을 두 축으로 하는 산업지원인프라로서 ‘도심형 미니산업클러스터 단지’ 를 도심 적지에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 ‘도심 비즈니스파크 조성’ 으로, 후자의 경우 ‘서울 도심메세(공동전시장) 조성’ 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그림 3>을 참조). 먼저, 도심 비즈니스파크는 열악하고 부족한 생산공간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내부에 각종 지원시설을 배치하는 것과 함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구비되고 폐기물 및 에너지순환 시스템이 마련된 친환경적 아파트형 공장형태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의 주요 지원 시설로는, 작업장/주차장/R&D지원시설/환경시설/각종 휴게시설 및 지원시설/주변조경시설 등을, 서울 도심메세의 경우에는 공동전시장/컨벤션시설/대규모 물류창고 및 주차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 미니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안)

·도심형 비즈니스파크 주요 기능:

- 생산 및 비즈니스활동 지원공간 제공
- 디자인, 신상품, 신기술개발 거점
- 공동장비 사용, 인력교육 공간 활용
- 조경·디자인을 활용한 도심랜드마크
- 업체간 네트워킹 및 협력 촉진
-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 요인 최소화

·서울 도심메세의 주요 기능 :

-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쇼케이스, 디자인룸,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의한 정보제공 및 마케팅 홍보 거점
- 업체간 교류공간 및 교류회 촉진
- 고객용 체험 및 이벤트 개최 공간

상기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현행 아파트형 공장제는 지원시설로서 전체의 20%(도심은 30%)까지 허용하는 제약을 두고 있는데, 2개동을 상호 인접시키되 지상 1,2층을 연결시킴으로써 공공전시장과 컨벤션 시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이라는 공간제약을 고려하여 입지를 포함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적정 개발모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 혹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제도적 뒷받침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2안이 유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적지 활용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3안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 제1안: 민간주도형 유통타운 개발 방안

-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구역 일부를 활용하여 민간주도 개발로 조성하며, 상업몰 형태의 유통타운으로 조성하되 민간의 사업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거용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주상혼재형으로 개발함
- 이 방안은 민간 주도의 주거용·상업용 개발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바 민간주도의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지원에 한정됨

○ 제2안: 민간주도형 유통타운 개발 방안

- 세운상가 재개발구역 일부, 이외 도심지에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일부 구역을

선정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근간으로 하는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함

- 사업초기단계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재원마련과 신탁회사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설립과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제3안 : 공공주도형 아파트형 공장개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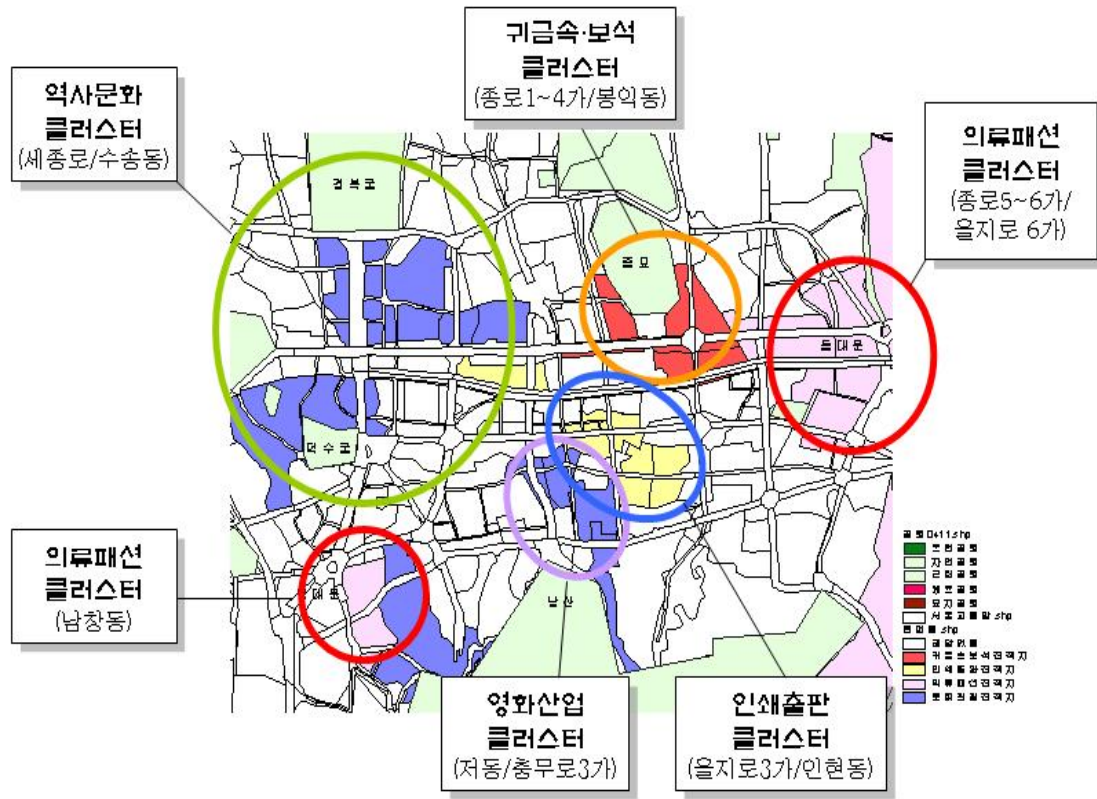
- 훈련원공원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적지를 대상으로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근간으로 하는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되, 여건에 따라 임대형으로 운영하거나 분양공급함

5) 도심권 산업클러스터 정체성 강화

상호연관되어 있는 업종 클러스터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동시에 각 업종들이 지리적으로 특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도심권 경제에 대해, 각 장소별 특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심 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업종별 우세지역에 대해 적절한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심 어메니티를 향상시키는 전략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해당 지역으로 기업과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클러스터의 활력을 증대시킬 것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업종별 장소 특화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장소의 선도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의 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메니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선, 클러스터관련 지구 지정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주요 산업입지제도 및 특구제도를 일차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지구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 의류패션클러스터 : 남대문·명동/동대문일대를 관광특구로 旣 지정
- 역사문화클러스터 : 세종로/수송동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 추진
- 귀금속보석클러스터 : 종로1~4가동/봉익동 일대, 인쇄출판클러스터 : 을지로3가/인현동 일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추진
- 영화산업클러스터 : 저동/충무로3가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추진



〈그림 4〉 도심부 주요 산업클러스터별 지구 지정 방안

도심 어메니티 향상 사업(가칭 ‘서울 도심 Amenity Upgrade 사업’)은 간판정비/가로 환경 정비/장소네이밍 및 조형물 확충/야간조명시설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장소네이밍 및 조형물 확충과 관련하여 앞의 지구지정과 연계하여 지구별 혹은 지구내부 가로망별 우세업종 이미지를 활용한 장소네이밍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장소명과 부합하고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중·대형의 조형물을 확충하고 이를 지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야간조명시설 확충 또한 도심권 경제에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데, 도심 내 역사문화시설, 거리조형물, 주요 빌딩 등을 대상으로 한 역동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도심의 야간경관 창출을 모색해 본다.

6) 클러스터 네트워킹 촉진 사업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내 기업간 교류와 협력, 나아가 클러스터간 연계와 네트워킹이 지식의 확산, 창의와 혁신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 더욱이, 의류패션, 귀금속보석, 디자인, 인쇄출판과 같이 공동의 기반을 가진 도심 산업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내, 혹은 클러스터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간 지식 및 인력교류를 보다 공식화하고, 사업상의 의존성이나 기술적 상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호 단절되어 있는 클러스터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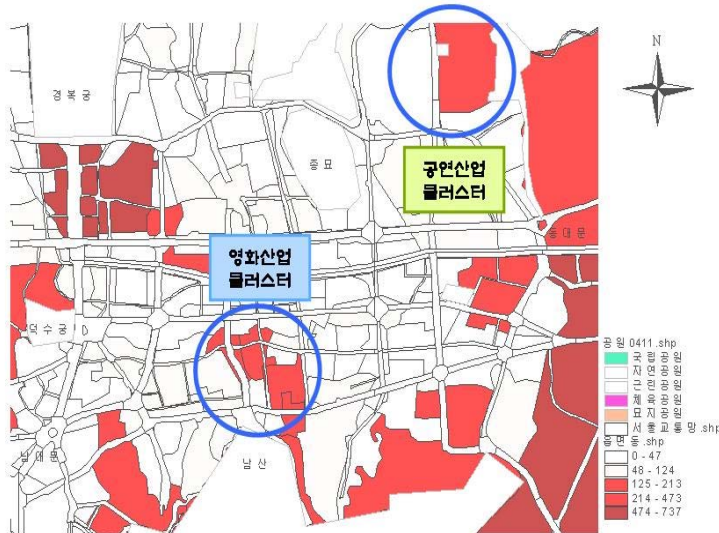
클러스터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각각은 도심권 지식교류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공동브랜드화 사업/산업디자인 역량강화 및 응용화지원 사업 등이다. 지식교류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산학연 주체간 InnoCafe운영이나 연구회 운영, 산업기술세미나와 정책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공공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재정 지원한다. 산업디자인 역량 강화 및 응용화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디자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확대함으로써 도심권 특화산업 클러스터들에 대한 디자인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일환으로 공동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관리하고 브랜드이미지를 구축·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네트워킹 촉진사업의 추진은 디자인기반을 강화하고 제품에 대한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도심권 내 영세 소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 외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협력의 필요성과 효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7) 도심권 창조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

일반적으로 영화나 음악, 공연예술과 같은 전통콘텐츠 영역과 디지털콘텐츠로 구분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 도심권은 강남권과 대비하여 전통콘텐츠의 상대적 우위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도심권 내에 문화콘텐츠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전통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중심에 두고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전통 문화콘텐츠 산업의 재활성화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해 현재의 문화지구(인사동)와 별도로 ‘도심문화산업지구’ (CIQ) 지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 도심의 문화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영상 및 공연예술 분야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산업지구의 경우, 과거 영화산업 메카이자 최근 강남으로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산업의 중심지 위상을 간직하고 있는 충무로3가동, 저동 1·2가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 공연예술산업지구의 경우에는 ‘젊음과 창작 거리’라는 상징적 이미지 속에 국내 공연예술의 물적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고 산업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고 있는 동숭동, 이화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그림 5> 참조). 지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과 함께, 물적 인프라 개선·확충, 거리미관 개선 및 상징성 강화,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

에 의한 장소마케팅 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문화컨텐츠 창작 및 시연공간 조성 사업도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지구 내 적정지점에 제작지원 집적시설로서 ‘서울 문화아방가르드(가칭)’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동 시설 내에 창작자와 시연자, 관련 단체를 입주시키고 각종 공간과 시설, 장비를 구축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거리명소화 전략의 추진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림 5> 도심부 문화산업지구 지정 방안

한편, 디지털컨텐츠 산업기반 육성과 관련해서는, 유통소비의 공간으로서 도심권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심권을 동 클러스터의 유통영역으로 특화시키고, 그 일환으로 유통소비활동을 지원하는 복합형복합체로서 ‘서울 디지토피아(DigiTopia)’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사업의 추진방안으로는 ‘용산구 전자상가의 지리적 인접지 일부를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장충체육과 일대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콤플렉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컨텐츠 전용상영관/제품및 기술전시홍보관/디지털체험관/디지털라이브러리/스퀘어가든과 같은 다양한 지원 시설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 도심내 역사문화 자산과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디지털컨텐츠 제작활동 지원도 산업기반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도심 한산네트워크(韓流-産業 networking) 활성화 사업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업체간 과당경쟁은 도심권 내수시장의 포화상태를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한계에 대한 돌파구로서 유치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증대되고 있는 한류현상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바, 도심 한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한류를 산업적(상업적)으

로 활용하는 한류마케팅과 이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한류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한류의 소비·유통을 위한 쌍방향의 다각적인 채널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는 단계적 접근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고려되는 바, 기반조성기(1단계)/교류활성화기(2단계)/네트워크 강화기(3단계)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3단계 추진과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 도심권내 한산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
- 동아시아 대도시 국제포럼 개최 사업
- 동아시아 주요 상권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 한류콘텐츠 제작 및 한류마케팅 사업

우선,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선도적 추진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으로, 이를 위해 ‘도심 한류제작연구지원센터(가칭)’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동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창조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한류콘텐츠 제작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도심권내 문화어매니티 환경 조성과 주요 지점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심권 기반 홍보채널 구축 등에 들 수 있다.

동아시아 대도시 국제포럼 개최와 주요 상권간 네트워크 구축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현행 유사 국제교류사업인 SIBAC과 연계 혹은 확대하여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가 참여한 국제포럼의 형태인 ‘동아시아 대도시 국제라운드 테이블(가칭)’ 개최를 추진하되, 제1회 라운드 테이블로서 아시안 문화예술축제 성격의 「동아시아 문화아방가르드」 개최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화인력 교류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상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비단계로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상가(인)을 적극 유치하고, 도심권 내 주요 상가와와의 협약을 통해 각 도시별로 부스나 상업공간을 별도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가령, 한상)과의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 및 해외교류네트워크 채널로 활용하고, 국내 상권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한다.

마지막으로, 한류콘텐츠 제작 및 한류마케팅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한류스타를 기용하고 도심을 소재로 한 영상과 이벤트를 제작함으로써 한류마케팅을 위한 일차 리소스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에 민간 주도의 영상물 제작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해 제작인프라 구축이나 제작자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류스타의 공연이나 제작발표회, 쇼케이스 등을 도심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업계와 제작주체, 그리고 도심 내 한류 거점기관인

‘도심 한류제작연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한류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한류가 산업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상기 일차 리소스 창출과 이벤트 추진에 기초하여 이차 연계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류에 의해 유인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심 내 주요 관광루트를 귀금속보석상가, 의류패션상가 등의 상권(가)들과 연계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패키지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연계상품 개발이나 이벤트 개최 등 공동마케팅을 개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 한류마케팅과 도심 산업의 연계를 위해 숙박시설, 교통수단, 안내시설, 상징조형물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 1. 도심산업의 정책적(전략적) 산업군과 해당 산업

구분		해당 산업
도심선도 산업군 (A, E, F)	정보통신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72)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2) 통신업(62)
	디지털콘텐츠 산업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72209)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72201) DB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 전자상거래업(52811)
	금융·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업(65), 보험 및 연금업(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7)
	비즈니스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개발업(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 사업지원서비스업(75)
도심특화 산업군 (C, G)	문화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87)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88) 호텔업(55111)
	의류패션 산업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제품제조업(1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가정용 섬유제품 및 의복 도매업(5141) 신발도매업(514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524)
	귀금속·보석 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제조업(36910)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51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소매업(52650)
	인쇄출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일반 산업군	도심근린 산업군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서비스(80), 음식료제조업(15), 도소매업(50, 51, 52) 부동산 및 임대업(70, 71), 보건업(85), 음식숙박업⁴⁾(55) 사회복지사업(86), 운수업(60, 61, 62, 63) 기타 서비스업(90, 91, 92, 93, 95, 99)
	관리형 산업군 (B,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외 <표 3>의 유형 B, D에 해당 산업 전부
	기타산업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산업(01, 02, 05, 10, 11, 12) 건설업(45, 4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주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업(제작 및 유통)과 문화산업(콘텐츠 공급)이 융합된 형태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엄밀한 구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도심선도산업군에 포함시키되 차후 분석 과정에서는 별도의 산업군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주 2) 의류패션산업에 해당하는 5141, 5142, 524 는 도소매업(51, 52)에서 제외

주 3) 귀금속·보석산업에 해당하는 36910, 51492, 52650은 각각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36), 도소매업(51, 52)에서 제외

주 4) 호텔업(55111)은 제외